

다시 듣는 법정 스님 법어 - 행복의 비결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 피어난다

옛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했듯이, 도(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해야 한다. 지닌 것이 많으면 도에 대한 뜻을 잃어버린다. 가난해야만 도에 가까이 할 수 있다. 소유를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신활동을 자유롭게 한다. 소유에 눈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씩 족할 뿐 뜻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뜻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가지고 자 하는 소유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활을 최소한으로 단순화하라.

그리고 마음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라. 투명한 마음의 작용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과잉소비사회와 포식사회가 인간을 멍들게 하고 우리 시대를 얼룩지게 만든다.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지적했듯이, 인간은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모든 사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는 말한다. '신으로부터조차도 자유로워져야 할 만큼 자유롭게 해방된 상태를 참으로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속과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완전한 자유'라고 그는 말한다.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얽히거나 매

지 않고 안팎으로 즐기분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전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개체에서 전체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있다.

요 근래 여러 곳의 선원에서 해제비(解制費)로써 막대한 돈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물량으로 넘치는 선원의 분유기와 이 땅의 선풍(禪風)이 우물하게 묻어온다. 명심하라. 수행자가 진리를 실현하려는 구도자로서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세속적인 사찰제도에서 벗어나 그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려보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종교가 아닌지를 냉정히 가려보라. 이것을 가려 볼 수 있다면, 승려나 사제 혹은 목사나 책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교회에 종교가 있다고 잘못 알지 말라. 어떤 종교든지 일단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 종교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그때 그 종교는 더 이상 신이나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에 대한 변명이 되어버린다. 종교의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상징을 종교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신은, 부처와 진리는 이런 곳에는 없다.

지켜보라. 허리를 꼴찌가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지켜보는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듯이 거기서 초월해 있다.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니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켜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어느 것 하나 거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도 그 받아들인 안에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 삶은 영원한 현재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무슨 일이고 이따옴표로 미루게 되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만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

임을 잊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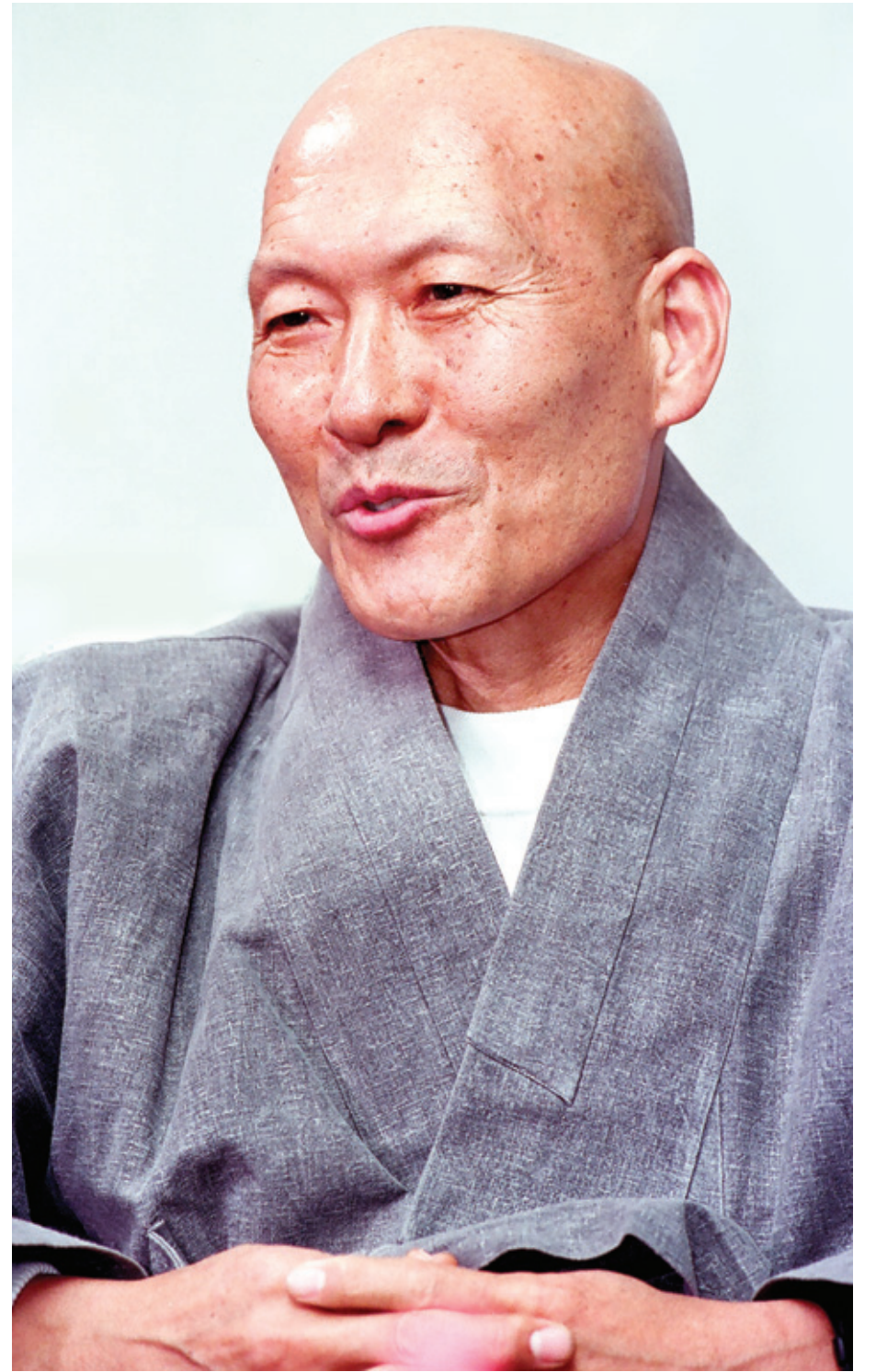
행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깨닫는다고 했는가? 깨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굳이 말을 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 그러나 깨닫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옛 부처님과 조사(祖師)들은 한결같이 말한 바 있다. 본래 성불(成佛)이라고, 본래부터 다 이루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다. 본래 성불이라면 어째서 다시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닦지 않으면 때문으니까, 마치 겨울처럼, 닦아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럼 깨달음이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이 비어 있을 때, 이때 문득 눈부신 햇살이 내 안에서 비쳐 나온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닌 줄 알아라. 대오신(待悟禪)은 선이 아닌 말을 기억하라. 종교적인 여행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그저 새롭게 출발할 뿐이다. 그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은 피어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 안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득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함께 지니고 있는 신비로운 세계다. 홀로 있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밀바닥에서는 고독한 존재다. 그 고독과 신비로운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거듭거듭 안으로 살피라.

무엇이든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성인의 가르침이라 할 지라도 종교적인 이론은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진정한 삶이 될 수 없다. 남한테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차린 것이 아니다. 남이 겪어 말해놓은 것을 내가 아는 체할 뿐이다. 진정한 삶이란 내가 몸소 직접 체험한 것, 이것만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형성한다. 공부나 뉘는 일이 됐건 전적으로 하라. 어중간한 것은 사람을 퇴보시킨다.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 안 한 것만 못하다.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기울여라. 그때 자기 안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난다. 그 변혁의 과정에서 참된 자기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규칙적인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 우리가



맑고 향기로운 차향과 연꽃을 좋아하신 생전의 법정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1995년)

아무 잡념 없이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곧 부처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드러난 것이다. 깊은 명상 속에 있을 수록 의문이 가라앉는다. 안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에게 물을 일이 하나도 없다. 의문이란 마음이 명상하지 않고 들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진정한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밖에 있는 스승은 다만 우리 내면의 스승을 만나도록 그 길을 가리켜 줄 뿐이다. 받아들여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어 있으면 놓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말수가 적어야 한다. 많은 생각을 어지럽힌다. 낙엽으로 빙구는 후박나무잎 치다꺼리에 수고 많았다. 늘 일어나는 빈가지에서 새봄의 싹을 찾아보아라. 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글은 제자에게 쓴 '수행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에 수록돼 있다



생각을 지켜보라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 가듯이

그렇게 지켜보라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라

삶은 영원한 현재다

누가 깨닫는다고 했는가

깨달음은 굳이 말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고

꽃향기처럼 풍겨 오는 것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울(宗) 불교 조계종

■ 종 정

총무원장: 혜인 역경원장: 울 원장: 혜일 방 장: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사서실장: 대산 해산법종 중앙선원장: 도일

■ 원로원: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인

총회 의장: 백공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교육원장: 원광	호계원장: 천불	비구니부장: 지성
총무부장: 정대	교육부원장: 광덕	호계부장: 태산	총무: 묘현
재무부장: 혜만	의식원장: 보운	규정부장: 월성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교무부장: 혜일	교육국장: 진산	규정국장: 영암	재무: 도은, 향인
사회부장: 정덕	교육국장: 진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교육: 법신, 성담
문화부장: 지운	포교원장: 정산	호법국장: 서산	문화: 남산, 보현
총무국장: 천산	포교부장: 법진	감찰원장: 상산	포교: 보명, 홍산
재무국장: 묘현	포교국장: 무량	감찰부장: 백산지건	강원: 덕산, 원산
교무국장: 지성	국제포교원장: 중산정목	감찰국장: 수산	강원: 덕산, 원산
사회국장: 법일	기획원장: 진성	감찰1국장: 무아	복지: 정해, 보현
문화국장: 혜인	기획실장: 노사나	감찰2국장: 인산	감찰: 분각, 련성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기획실장: 노사나	감찰3국장: 봉산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총무과장: 남산			의식: 영산, 지해, 수옥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총무원장: 정산	충북총무원장: 학산	전북총무원장: 법성
서울남부총무원장: 보덕	경남총무원장: 도홍	제주총무원장: 청호
경기총무원장: 도불	경남남부총무원장: 천산	울산총무원장: 해공
경기서부총무원장: 덕산	경남서부총무원장: 지명	일본오사카총무원장: 인혜
경기남부총무원장: 혜인	경남창원총무원장: 지원	일본동경총무원장: 정대
인천총무원장: 혜일	경북총무원장: 원광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강원총무원장: 광덕	부산총무원장: 정오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충남총무원장: 혜덕	부산북부총무원장: 수산	중국청도총무원장: 중산정목
	전남총무원장: 도명	

■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조덕연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사회국장: 법산
 유현석
 이사: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혜인, 묘현,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삼화불교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에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림

서울총림 혜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공사
 경남총림 백전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삼화불교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인권식
 박국서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제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삼화불교대학원

학 장: 법종 부학장: 일봉
 교 수: 법종, 백공, 해운, 월공,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성산, 원명, 분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정호, 현덕, 일행, 동명, 무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 삼화불교대대학원

원 장: 혜인
 교 수: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범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절산, 덕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총의약대학

총 장: 오연화 부 학 장: 정오, 남산
 한국총장: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손영진
 학생처장: 손영진 조 교: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과장: 이안산
 운영이사: 법정, 혜담, 보현, 분각, 수옥, 향인, 수정, 현호,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